

<2014.07.03.~2014.07.07.>

인쇄 : 네이버 뉴스

페이지 1 / 4

NAVER 뉴스

인쇄하기 취소

고창서 국내 최초 철새 '댕기바다오리' 발견

연립뉴스 | 기사입력 2014-07-03 22:14 | 최종수정 2014-07-03 22:22



고창서 국내 최초 철새 '댕기바다오리' 발견 (전주=연합뉴스) 김진방 기자 = 전북 고창에서 국내 최초로 철새인 '댕기바다오리'가 발견됐다. 전북대학교 수의대 임채웅 교수는 지난달 27일 고창군 부안면 운양리 백운마을의 한 논에서 댕기바다오리가 한 주민에 의해 발견됐다고 3일 밝혔다. 국내에서 처음 발견된

이 철새는 발견 당시 탈진 상태였고, 발견 후 사흘 만에 죽었다. 땡기바다오리는 도요목 바다오리과로 오리처럼 물갈퀴를 가지고 있으며 몸길이 약 35cm 크기의 철새다. 주로 앵무새같이 큰 부리를 갖고 있으며, 날개는 잠수하기 좋게 짧은 형태를 띠고 있다. 2014.7.3 <<지방기사 참조>> chinakim@yna.co.kr

1933년 두만강서 일본인 채집 이후 첫 관측

(전주=연합뉴스) 김진방 기자 = 전북 고창에서 국내 최초로 철새인 '땡기바다오리'가 발견됐다.

전북대학교 수의대 임채웅 교수는 지난달 27일 고창군 부안면 운양리 백운마을의 한 논에서 땡기바다오리가 한 주민에 의해 발견됐다고 3일 밝혔다.

국내에서 처음 발견된 이 철새는 발견 당시 탈진 상태였고, 발견 후 사흘 만에 죽었다.

땡기바다오리는 도요목 바다오리과로 오리처럼 물갈퀴를 가지고 있으며 몸길이 약 35cm 크기의 철새다. 주로 앵무새같이 큰 부리를 갖고 있으며, 날개는 잠수하기 좋게 짧은 형태를 띠고 있다. 사람이 없는 섬이나 해안가에 서식하며 알래스카 남동부와 캄차카반도, 쿠릴열도 등 오후츠크해 연안에서 번식한 뒤 겨울이 되면 북태평양 등으로 이동한다.



국내 최초 발견된 '댕기바다오리' (전주=연합뉴스) 김진방 기자 = 전북 고창에서 국내 최초로 철새인 '댕기바다오리'가 발견됐다. 전북대학교 수의대 임채웅 교수는 지난달 27일 고창군 부안면 운양리 백운마을의 한 논에서 댕기바다오리가 한 주민에 의해 발견됐다고 3일 밝혔다. 국내에서 처음 발견된 이 철새는 발견 당시 탈진 상태였고, 발견 후 사흘 만에 죽었다. 댕기바다오리는 도요목 바다오리과로 오리처럼 물갈퀴를 가지고 있으며 몸길이 약 35cm 크기의 철새다. 주로 앵무새같이 큰 부리를 갖고 있으며, 날개는 잡수하기 좋게 짧은 형태를 띠고 있다. 2014.7.3 <<지방기사 참조>> chinakim@yna.co.kr

이번에 발견된 댕기바다오리도 약 35cm로 성체인 것으로 확인됐다.

임 교수는 "댕기바다오리는 1933년 일본인에 의해 북한 두만강에서 발견된 적이 있으며, 당시 채집된 개체는 일본 효고현 박물관에서 보관하고 있다"면서 "국내에서 댕기바다오리가 발견되거나 학계에 보고된 적은 없다"고 말했다.

임 교수 연구팀은 사체를 부검해 사인을 분석하는 한편, 땀기바다오리가 어떤 경로로 고창에 오게 됐는지 조사할 예정이다.

chinakim@yna.co.kr

▶ 확 달라진 연합뉴스 앱 다운로드

▶ [월드컵] 축구협회 "홍명보 대표팀 감독 유임"

<저작권자(c) 연합뉴스, 무단 전재-재배포 금지>

! 이 기사 주소 <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POD&mid=etc&oid=001&aid=0006996103>

인쇄하기 취소

‘댕기바다오리’ 국내 최초 고창서 발견

전북대 수의과대학 동물병원서 치료중 4일만에 폐사

희귀 철새인 ‘댕기바다오리’가 고창에서 발견됐다.

전북대학교 수의과대학 야생동물구조센터는 지난달 27일 고창군 부안면 운양리 백운마을의 한 논에서 댕기바다오리가 발견됐다고 4일 밝혔다.

국내에서 처음 발견된 이 철새는 발견 당시 탈진 상태였으며 전북대 수의과대학 동물병원에서 먹이를 먹고 치료를 받았지만 사흘만에 폐사했다.

댕기바다오리는 도요목 바다오리과로 오리처럼 물갈퀴를 가지고 있으며 몸길이 약 35cm 크기의 철새다.

앵무새처럼 아름다운 큰 부리를 갖고 있으며 날개는 잠수하기 좋게 짧은 형태를 띠고 있다.

사람이 없는 섬이나 해안가에 서식하며 알래스카 남동부와 캄차카반도, 쿠릴 열도 등 오후츠크해 연안에서 번식한 뒤 겨울이 되면 북태평양 등으로 이동한다.

이번에 발견된 댕기바다오리도 약 35cm로 성체인 것으로 확인됐다.



▲댕기바다오리.

전북대 수의과대학 임채웅 교수는 “1933년에 북한 두만강에서 채집된 개체는 현재 일본 효고현 박물관에서 보관하고 있으며 그 뒤 우리나라에서 ‘댕기바다오리’가 발견되거나 학계에 보고된 적은 없다”고 말했다.

이인행기자/ih0082@hanmail.net

118 X 128 mm